

## 과기정통부-엔트로픽,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제2차관 참석,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폭 넓은 협력 방안 논의
- 인공지능 기본법 등 인공지능 법제도, 안전성 평가 등 인공지능 안전·신뢰 정책 발전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장관 조현),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덕원),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소장 김명주, 이하 ‘AISI’),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및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과 함께 인공지능 안전·신뢰 확보, 국내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엔트로픽 사(社)와 인공지능·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5월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에 개최된 2026 인도 인공지능(AI) 영향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 2026)에서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와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 경영 책임자(CEO) 간의 면담 과정에서 논의된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대한 후속 논의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사이버보안 분야 활용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넘어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과기정통부-엔트로픽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 인공지능 안전연구소(AISI) 김명주 소장,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오진영 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마이클 셀리토(Michael Sellitto) 국제(글로벌) 정책 총괄(Head of Global Affairs) 등 엔트로픽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의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엔트로픽에 사이버보안 관련 한국 기업이나 기관 등과의 협력을 제안하고, 한국이 취약점 공개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요청하였으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인공지능 모델의 사이버보안 분야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과 실무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공지능 기본법 등 인공지능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국내 인공지능 정책·제도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세계적으로도 인공지능 산업 혁신과 국민 신뢰 기반 조성의 근거를 마련한 선도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엔트로픽에 대해 세계적 인공지능 선도기업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모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AISI)와 엔트로픽 간 협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프론티어급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활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인공지능 혁신과 더불어 국민·기업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모델의 안전성 확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 인공지능 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적인 인공지능 선도 기업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인공지능 안전 신뢰정책과	책임자	과장	장두원 (044-202-6290)
		담당자	사무관	심지섭 (044-202-6293)
		담당자	사무관	김현희 (044-202-6295)
담당 부서 (사이버보안)	정보보호산업과	책임자	과장	이종혁 (044-202-6450)
		담당자	사무관	박세진 (044-202-6455)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능책브리핑

